

전국 16곳 외국인카지노 호남에만 없어... 지역균형 고려해야

내달 최종 선정 복합리조트... 여수 경도 포함 촉각

전남도가 여수 경도리조트에 카지노 유치에 나선 가운데 오는 8월말께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공모를 마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복합리조트 사업'에 전국 9개 지역 34개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여수 경도해안관광단지에는 국내·외 3개 컨소시엄이 기본제안서(RFC)를 제출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핵심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비롯해 5성급 호텔, 회의시설, 테마아트렉션, 면세점 등 쇼핑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말까지 해당 지역, 12월 말까지 사업자를 각각 선정해 오는 2020년에 리조트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재계에는 부산과 인천이 이미 유치를 확정해 놓은 상황에서 추가로 1~2곳을 선정할 수도 있다는 설이 퍼져있다. 이에 이낙연 전남지사는 다음 달 초 문광부를 직접 방문, 경도의 장점을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 고려 안 하나=문광부가 평가지표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수요와 접근성을 주요 평가지표로 한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 이는 부산과 인천의 확정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호남지역 민관정계는 공동으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현재 전국에는 16개의 외국인카

전국 34개 컨소시엄 선정

부산·인천 확정설 파다

경도, 조기 사업 추진도 가능

지나가 있지만 호남에는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요와 접근성을 평가할 경우 여수 경도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표는 지역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철도 등 호남권 기반시설 투자 때마다 단골 메뉴였다. 그렇지만, 이 같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정부의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는 점을 보여줬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리조트 사업은 정부의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허기만 내달라는 것이어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박(천박근해)계의 잔치 되나=이 사업이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 1월이고 공고는 2월말께 나왔다. 이때부터 정자권은 물론 재계에 새누리당 소속이자 천박계인 서병수 부산시장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밀고 있는 부산, 역시 대표적 천박계인 유정복 인천시장이나서고 있는 인천이 유치를 거의 확정지었고 이후 공모과정은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는 설이 퍼졌다. 하

지만, 실제 공모 결과, 9개 지역 34개 컨소시엄이 참여하면서 추가 선정 가능성이 흘러나왔다.

더욱이 뒤늦게 경기도 화성시 사업 유치 전에 뛰어들면서 이 가능성을 더욱 크게 했다. 이 지역은 천박계의 거두인 새누리당 서정원 의원의 적극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번 리조트 사업이 천박계의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경쟁력 제대로 평가하나=재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준을 차치하고라도 기한 내 사업추진 가능성과 외국인 투자여건 등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요와 접근성만 평가할 경우 수도권 및 대도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중소규모 도시는 선정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여수 경도는 65만평 규모의 사업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까지 마무리해 조기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일 뿐 아니라 국내 3번째 크루즈 전용부두 운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섬 복합리조트로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으로 꼽힌다.

전남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카지노를 허가를 내면 수요가 한계에 도달해 더 이상 허가가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박5일 영산강 탐사 출발 청소년 100명과 일반인 20여 명으로 구성된 '제10회 영산강 탐사대'가 28일 오전 영산강의 발원지인 담양 용소에서 발대식을 갖고 4박5일간의 영산강 탐사에 나섰다. /김진수기자 jeans

기초지자체 수원 인구, 광역지자체 울산 추월

작년 행정자치 기본통계

공무원수 첫 100만명 돌파

읍면동 7곳 주민수 0

재정자립도 전남 여전히 꼴찌

'광역급' 기초자치단체 수원시의 인구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울산시를 추월했다. 전국의 공무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행정자치 분야 기본통계가 수록된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통권 17호)를 28일 발간했다. 행정자치통계연보는 행정부 일반현황, 정부조직, 공무원 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역발전, 지방재정, 행정관리 등 8개 분야 총 181개 통계표를 담고 있다.

지난해 행정구역은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으로 기초자치단체가 226곳으로 줄었다. 광역자치단체는 17개를 유지했다. 시도별 인구분포는 경기도가 1235만 7830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5만 6125명으로 가장 적다. 시군구 중 주민이 가장 많은 수원시 인구는 117만 4228명으로, 가장 적은 울릉군(1만 264명)의 114배나 된다. 수원 인구는 작

년말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116만6천명)를 추월했다.

하부 행정구역인 읍면동은 2691곳이며 이 가운데 파주시 장단면과 진서면 등 7곳은 주민이 한 명도 없다.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 대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사라져 전체 정부조직은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에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개편됐다.

작년말 기준 공무원 수는 101만 310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 여성공무원 비율은 43.9%로 높아졌다. 올해 자치단체 예산총액(당초예산 기준)은 173조 2590억원으로 작년보다 5.92%(9조 6797억원) 늘었다.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늘어나는 복지부담 등의 여파로 2012년 52.3%에서 올해 45.1%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서울(80.4%)이 가장 높고 전남(14.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군구 재정자립도는 화성시가 59.1%로 가장 높고 영양군이 4.5%로 꼴찌

전국 인구 최다·최소 행정구역



를 기록했다. 올해 자치단체 예산 중 사회복지(보건 포함) 분야 비중은 27.8%로 역대 최고로 높다. 5년 전과 비교하면 7.2%포인트, 28조 2000억원이 증가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는 급증하는 폐쇄회로(CCTV)와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사생활침해 우려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는 총 65만 5030대이고, 이를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는 149곳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빼어난 풍광에 크루즈까지... 여수 경도 경쟁력 충분”

유치 총력 이정현 의원



정부의 복합리조트 대상 지역 선정이 8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곡성)이 여수 경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막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여수 경도가 복합리조트 지역으로 선정된다면 전남의 중국 관광객 유치 등에 획기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광주일보에 28일 이정현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여수 경도의 복합리조트 선정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다.

- 정부의 복합리조트 대상 지역 선정과 관련, 여권 실세 지역 '낙점설'이 있다.

▶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부 투자 사업이 아니라 민자가 들어오는 사업이다. 복합리조트에 가장 적절한 지역이 우선 고려될 것이다.

- 하지만 벌써부터 특정 지역 선정이 거론되고 있다.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있다.

- 여수 경도는 어려운 것인가.

▶ 그렇지 않다. 인천, 부산이 도심형 복합리조트 성격이라면 여수 경도는 자연 친화형이라는 차별성이 있다. 단순하게 보지 말고 미래 가치를 봐야 한다.

- 복합리조트 선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

▶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우선 경도는 한려수도의 풍광이 뛰어난 섬이다. 힐링이 될 수 있는 자연친화형 복합리조트라는

것이다. 여기에 크루즈 접안시설이 갖춰지면 중국을 비롯,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이다.

- 미래 가치를 봐야 한다는 것은.

▶ 경도의 복합리조트는 여수 세계박람회 부지 사후 활용과 순천 정원 박물관 등을 연계할 수 있다. 여기에 송광사, 화엄사 등 한국의 사찰 문화와도 접목될 수 있다. 지리산 자락의 청정 자연도 즐길 수 있다. 단순한 복합리조트를 넘어 전남과 대한민국의 멋과 문화를 전할 수 있다. 창조 경제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이러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 대상 지역 선정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 세 곳의 복합리조트 대상 지역에 여수 경도가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정부에 여수 경도의 차별성과 미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나주혁신산업단지 분양! 에너지밸리로 탄생하다!

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한전 에너지밸리 조성으로 500개 기업 유치 예정!!

공급 대상 용지

산업시설용지	206필지
지원시설용지	43필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2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
단독주택	12필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주혁신산업단지 (http://www.najuino.co.kr)

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기업투자 최적지- 나주혁신산업단지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 합리적인 분양가
- 편리한 교통망
- 경영시너지 산업네트워크

분양문의 061) 336-9916

전라남도 JeollaNamdo 나주시 Naju시 나주혁신산업단지(주) Naju Innovation Industrial Complex Co., Ltd.